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김성일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e.kr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김성일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2년 가까이 변이 코로나 19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저성장, 고실업, 소득 양극화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경제는 디지털 및 네트워크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가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압력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와 기간산업에 미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중간의 갈등이 무역에서 국가안보를 넘어 첨단 기술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관계, 안보, 국제무역, 희소성 원자재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1조 2천억여 달러 무역규모 달성으로 세계 8위의 무역강국으로 발돋움 했고 음악,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는 백신효과 감소, 기온강하 등 여파로 감염 상황이 빠르게 악화 되고 있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동산 가격 폭등, 소비자물가 상

승,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증가, 젊은 세대의 취업률 저하 등으로 인한 세대간 또는 빈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대립이 어느때 보다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군전우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국립현충원 합동참배, 추모행사 참여,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행사, 일선 전투부대 위문, 친선 골프대회 개최와 6·25졸격 원로조종사에게 연말 선물 보내기, 보라매지 발간 등은 계획대로 시행하는 외에 회원관리 및 자체 운영자금 확보수단 발굴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 중 중앙회와 지부·지회의 대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안보현장 견학 및 공군작전전승행사 참여 등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군발전협회는 지난 6월 2일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항공우주력연구' 논문집 제9집을 발간하였으며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였던 군사학술 용역과제연구는 지난해에도 5건의 과제를 수주 완료하는 등 누적 16건의 과제를 통해 연구위원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25전쟁후 지난 70여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과 함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 해오는 가운데, 특히 6·25전쟁 당시 연락기 20여 대로 출범했던 우리공군이 이제 스텔스전투기 등 최신무기체계를 확보 운영함으로써 한 세대 발전된 첨단 공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공군을 거쳐간 모든 공군인과 현역 공군장병들이 쌓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기에 공군인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의 지속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미·중간 패권경쟁이 동북아의 신냉전질서를 형성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에도 극초음속미사일과 소형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첨단무기의 고도화를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의 국방태세는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전략,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지휘통제체계 등을 구상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또는 축소되었던 각종 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종전선언과 관련된 현안 등이 한미간 또는 당사국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 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이런 난제들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

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역제를 주도함과 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안보단체들은 현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보활동을 지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군에서는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지만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도 대내외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회원간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국가와 공군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 회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공군전우회와 공군발전협회는 공군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역량을 동원하여 측면 지원을 다할 것이며, 또한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두 단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전우회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지부/지회와 공군발전협회의 모든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대한민국과 우주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민국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김성일

2021년도 '탑건' 최준상 대위에 공군전우회 보라매상 전수

공군전우회는 12월21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공군 2021년 공군작전사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2021년도 탑건(Top Gun)으로 선발된 제8전투비행단 최준상 대위(학사 138기)에게 본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과 포상금을 코로나 상황악화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강화 준수에 따라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위임하여 수여했다.

보라매상은 2009년도부터 탑건으로 선발된 조종사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제도화하여 상장, 상패 및 포상금 1백만원

을 수여하고 있다.

공군 최고의 조종사를 일컫는 2021년도 '탑건'에 선발된 FA-50 전투조종사 최대위는 '공대공 요격'과 '공대지 폭격' 부문에 참가하여 총1000점 만점에 995점을 획득해 탑건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FA-50이 지난 2014년 대회 참가 이래 7년만에 최초로 탑건 조종사를 배출해 의미를 더했다.//



일선전투부대에 위문품 전달

분회 김성일 회장은 12월 21일 국방의 최일선에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18전투비행단, 제312관제대대 및 제526 방공포대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회장단 7명이 부대를 직접방문해 격려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침 준수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전화통화로 대신했다. 위문품은 세탁기 10대와 스넥류 500박스를 방문 부대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3개부대 지휘관들에게 “안벽한 영공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장병들 덕택에 우리국민들이 일상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과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로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전비 단장은 12월 28일 장병위문품 수령과 격려 전화에 보답하는 인사로 부대장병의 정성을 모아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F-5 E 편대’ 사진(사진 참조) 액자를 전우회에 보내왔다.//

공군 6·25 출격조종사에 연말 위로 선물

공군전우회와 공군학사장교회 공동주관으로 연례행사로 실시했던 공군 6.25 출격원조종사 초청행사를 코로나 사태 악화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연말 위로 선물보내

기로 대체 했다. 위로 선물은 12월 2일 주소지가 확인된 13명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2사총동문회 신임 회장단 내방

분회 산하단체인 공군2사관학교 총동문회(회장 전용기, 2사 7기) 제7대 신임 회장단 일행이 1월 10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신임 전 회장은 2사 총동문회 일반현황 및 활동계획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산하단체 일원으로서 전우회 발전에 기여하고, 2사총동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회 김 회장은 “신임 회장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사 총동문회는 2008년 9월 창립되어 2009년 12월 본회 산하단체로 공식 등록 하였고, 현재 약 1,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신임 회장단은 12월 14일부로 취임하였으며 2년간 총동문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김진홍 항공과학고총동창회장 내방

항공과학고총동창회 김진홍 회장 외 1명이 12월 20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성일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김진홍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본회 발전기금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분회 김 회장은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의 활발한 활동 및 모교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한다”고 말했다.//



'21년도(제19회) 전우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공군전우회 주관 2021년도(제19회) 친선골프대회가 11월 4일 성남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동호회원 15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개인전), 2부(단체전)로 구분 개최하였고, 대회 결과 1부 행사에서는 18명의 조별 우승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근접상에는 보급회 박대혁, 장타상에는 방공회 박배조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우승 학사회, 준우승 이글회, 3위는 황성회가 차지했다.

한편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많은 협찬을 하였는데 학사장교회 100만원, 황성회 60만원, 정우회, 시우회, 정통회, 기무회, 원우회, 해동청회에서 각 50만원, 수송회, 방공회 각 40만원, 무스탕전우회, 향록회, 수지회 각 35만원, 이글회, 관리회, 보급회, 기무회, 17-21회, 조종간부회, 은하회, 군무원회, 청운회에서 각 30만원, 22-23회 20만원 및 전우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개인후원으로는 이강욱 골프동호회장이 참가상으로 오곡쌀을 전 참가자에게, 그리고 경품으로 퍼터, 수면용 매트 및 미용비누 총 9점을 후원하였다.

이번 대회는 위드 코로나 19의 상황하에서 실시되었지만 모든 참가선수들에게 많은 참가상품 제공 및 경품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동시에 골프동호회 22개단체 대표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47기 학사사관 및 241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시 보라매상 전수

공군전우회는 12월 2일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47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과 12월 29일 24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전우회상인 보라매상을 코로나 사태로 직접 참석하여 수여하지 못하고 교육사령관에게 위임하여 전수했다.

학사사관후보생은 233명이 신임 장교로 임관했고, 부사관후보생은 380명이 신임하사로 각각 임관했으며, 보



라매상에는 박동찬 소위와 최미나 하사가 차지했으며 메달과 상패가 전수됐다.//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위로행사

김성일 분회 회장과 최차규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장은 11월 26일 공군호텔에서 참석이 가능한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이하 순조회)회원 23명을 초청해 위로행사를 가졌다.

김성일 회장은 “우리공군은 이제 첨단공군으로 발전 하였다”며 “이는 공군을 거쳐간 여러 선·후배님들을 비롯한 순직하신 분들의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며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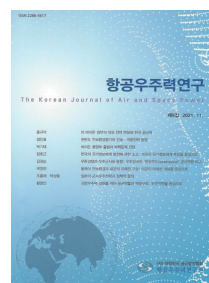
이에 송우영 순조회장은 “공군전우회와 공사총동창회가 항상 순조회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순조회원들은 항상 공군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에 대해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순조회는 1976년 8월 창립되어 현재 약 6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순직조종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군사관학교에 건립된 “영원한빛 추모탑”참배와 어려운 회원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항공우주력 연구 제9집 발간



공군발전협회(회장 김성일)는 공군 예비역 및 현역들의 군사학술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공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우주력 연구”제9집을 11월 30일 발간했다.

연구지에는 미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공군력(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안보 국방전략 방향(설인호, 한국국방연구원)한국의 국가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소고(장호근, 예소장, 공사 17기, 전 연합사정보참모부장) 등 9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술지인 “항공우주력 연구”는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한 안보전문지로서 관심 있는 국내안보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안보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11월 4일 지부회원 약 20여명이 (사)호국영령이일영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일영 공군중위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고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소재 이일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권영세 안동시장, 각 기관단체장, 유족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본회 김성일 회장은 남상석 대구지부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6·25전 쟁중 적 후방 및 보급로를 차단하던 중 적 포화에 장렬하게 산화하신 이일영 중위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구지부는 12월 7일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 결산 및 회칙 정비내용을 의결했다.//

부산지부

부산지부(지부장 김종윤)는 11월 26일 지부 임원진 및 355-A 지구 국제라이온스 회장(김선호, 전 부산지부장)과 함께 공군공중정찰사령관의 초청을 받아 부대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부대 브리핑현황 청취, 간담회, 선물교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부 청년부장의 협찬으로 생수 6천병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창원지회

창원지회는 12월 9일 지회 사무실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집행부와 가족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임한 김종완 지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회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으며, 신임 설병철 지회장은 “2022년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욱더 발전

된 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회 부녀회장을 비롯한 3명이 중앙회장의 공로상을 수상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 회장단 일행은 12월 17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박남춘 시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 지부장은 인천지부 현황과 활동상을 간략히 얘기하고, 박 시장은 “본인도 공군 학사 77기로 임관했고, 공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부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주지회

청주지회(지회장 이균신)는 11월 23일 정기 이사회를 시내 식당에서 지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수지결산과 22년도 사업/예산계획안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11일에는 시내 상당구 중앙동과 지회간 자매결연으로 인한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새마을 지도자 회원 및 지회원들이 함께 독거 노인과 청소년 가장 돕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서부지회

충남서부지회(홍성·당진·예산, 지회장 조봉환) 회장단은 12월 8일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 지휘관과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을 전달하였으며,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공군발전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대의원) 개최 안내

■ 정기 총회 개최

- 일시: 2022. 2. 10(목) 11:30-13:00
- 장소: 공군호텔
- 참석: 공군발전협회 대의원 (초청장 별도 발송)
- 내용: 회무보고 및 안건 심의

공군전우회 2022년도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안내

■ 정기 이사회 개최

- 일시: 2022. 3. 8(화) 11:30-13:00
- 장소: 공군호텔
- 참석: 공군전우회 이사 (초청장 별도 발송)
- 내용: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

■ 정기 총회 개최

- 일시: 2022. 3. 23(수) 17:00-19:00
- 장소: 공군호텔
- 참석: 공군전우회 정회원 (초청장 별도발송) 전국 각 지부/지회장 및 사무국장 (초청장 별도발송)
- 내용: 회무보고 및 안건심의, 회장 이·취임식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공군은 12월21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년 공군작전 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중사격대회는 최고의 공중 전투기량을 갖춘 조종사와 대대를 가리는 대회다. 1960년 공군사격대회로 시작한 이래 지난해 62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전투기' 분야와 '공중기동기'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9월 열린 공중기동기 분야에는 C-130, CN-235, HH-32, HH-47, HH-60 조종사 41명이 참가했다. 10월 전개한 전투기 분야에는 F-15K, (K)F-16, FA-50, F-5, F-4, KA-1 등 조종사 198명이 출전해 그동안 같고닮은 기량을 발휘했다. 치열한 경쟁 결과 단체부문 종합 최우수대대(전투기 분야)는 10전투비행단 101전투비행대대(F-5), 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F-15K), 8



전투비행단 203전투비행대대(FA-50)가 차지했다. 요격통제 분야에서는 31전대 2 통제대가 최우수대대로 선정됐다. 이들 대대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밖에 공중기동기 공중투하 부문에서는 5공중기동비행단 CN-235 수송기 조종사 좌성호 소령이, 공중기동기 탐색구조 부문에서는 6탐색구조비행대대 HH-32 헬기 조종사 최덕근 소령(진)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2021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

2021 공군작전 전승기념식이 10월 26일 강릉기지 전공탑앞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8전투비행단 지휘관 참모 및 신분별 대표 등 코로나 19 상황으로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출격조종사 중 전사/순직한 31위에 대한 ROLL CALL, 개식사, 국민의례, 동영상 시현(전투 약사), 헌화/분향, 기념사 및 호국영령께 대한 경례순으로 진행되었다. 공군작전 전승기념행사는 6.25전쟁당시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우리공군은 전쟁발발 이틀후인 6월 27일 10명의 조종사를 일 본으로 보내 미군으로부터 10대의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받아 7월2일 대구기지에 도착한 후 바로 다음날 부터 출격을 개시하였고 전열을 정비한 후 강릉기지에서 본격적



인 작전을 전개하여 공군 최대전적으로 평가받는 승호리철교 폭과작전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등 6.25전쟁기간중 총 7851회의 공군작전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다. 또한 18전비 지휘관 참모 및 신분별 대표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위치한 351고지 전투작전지원 전적비앞에서 351고지 탈환시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참배행사도 실시했다.//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

공군은 12월 24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거행했다. 지난 2001년 시작해 21회를 맞이한 '공군을 빛낸 인물'은 한 해 동안 창의적·능동적인 임무수행으로 공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단체를 시상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2명과 단체 6개 팀이 선정돼 상패·상금을 받았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항공우주전투발전단과 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수상했다. 조직운영 발전 부문에서는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신지



식·정보화 부문은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신기술정책과, 희생·봉사 부문에는 공군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신속대응반, 협력 부문 개인상은 미7공군사령부 감찰관실 D.J. 에이브러햄슨 중령이 그리고 체육·문화 부문에는 공군사관학교 강창부 박물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래국방기술·전략 학술대회

공군은 11월30일 국방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과 공동으로 제2회 미래국방기술 및 전략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방 항공우주력의 도약, 하늘을 넘어 우주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내외 국방·기술 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행사는 조형희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환영사, 기조강연, 세션별 주제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공군본부 우주센터 황영민 중령이 '공군 우주력 발전 전략'을, 한국천문연구원 조성기 우주위험감시센터장이 '우주 감시기술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 또 공군본부 류기필(중령) 전자전과장



은 '전자전 스펙트럼 우세를 위한 공군 전자전 전략'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양수석 박사는 '우주선진국의 발사체 개발전략 및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우주, 위성, 무인기·레이더, 정책·전략 등 4개 분야 전문가 강연 영상을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였다.//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

공군은 11월30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와 공동으로 제11회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군 갈등과 갈등관리제도의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각 군, 정부,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주제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박종혁 박사는 '관제부대 창설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를 소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채종현 박사는 '갈등관리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며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에 따른 갈등사



례를 설명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김강민 교수는 '공군사격장 주변의 소음·환경문제를 둘러싼 민·관·군의 이해관계 및 갈등 쟁점 분석'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합리적 갈등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21년 사천지구 호국영령 추모행사

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은 10월24일 부대내 역사전시장 위령비 앞에서 공군 교육사령관을 비롯한 3훈비 지휘관참모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주관하여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가 및 호국영령께 대한 경례 순으로 진행됐다. 사천 공군호국영령 위령비는 6.25전쟁시부터 1962년 6월까지 사천기지에서 작전임무



및 훈련 중 호국의 넋으로 산화한 고 김영환 장군 등 45인의 영령을 위로하고자 건립되었다.//

전역증 재발급 안내

1. 초도발급 (발급기준)

기준(임관)	발급처	발급양식	발행명의
임관 후 10년 이상 복무 장교 준.부사관	전직지원정책과	플라스틱카드형 전역증	장교: 국방부장관 준.부사관, 병: 참모총장
임관일 기준 10년 미만	전역 부대장(인사참모)	종이 카드형 전역증	

※ 변경 일자 : 2002. 07. 1부 (국.인사33144-2908('02.6.28) 카드식 전역증 발급대상 지침 하달)

가. 대상자: 임관 후 10년 이상 근무 장교, 준.부사관
나. 변경내용: 종이카드형 전역증 → 플라스틱 카드형 전역증

2. 재발급 업무 (국.인사기획관리과 131('19.1.31.) 예비역 간부 플라스틱 전역증 재발급 관련 지침 하달)

가. 업무 소관 부서 : 각 지방 병무청 고객지원과
나. 재발급 신청 방법 : 병무청 내방 또는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 민원포탈 → 동원/예비군 → 전역증 재교부
※ 재발급 관련 업무 경과

전역 월	재발급 부서	사유
~2017.6	전직지원정책과	종전 전역자 플라스틱 카드 초도발행 *18년도까지 전직과에서 재발행 업무 실시
2017.7~2019. 3	전직지원정책과	병무청 재발급 관련 업무 준비 (플라스틱카드전역증 발급 변경:2017.7)
2019. 4	각 지방병무청	

제7회 공군역사 학술회의

공군역사재단(이사장 김호연)과 공군은 11월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회 공군역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6·25전쟁, 항공력에 의한 승리의 기록'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는 극동공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UN)군의 항공력이 6·25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미래 공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이영하 공군역사재단 부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축사, 6·25전쟁 첫 100회 출격 조종사인 김두만 전(前) 공군참모총장 기조연설, 전문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6·25전쟁 참전 조종사 김 전 총장은 "공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후배 장병과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 공군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다짐해 큰 감동을 줬다.//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에 박준용 대위(진)·이효복

2021년도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 '골든아이'에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7328부대 박준용 대위(진)와 기동정찰사령부 예하 51항공통제비행전대 이효복 준위가 선정됐다. 공군은 12월 2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제42회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열어 이들에게 합참의장상과 '골든아이' 칭호를 부여했다. 방공무기통제사는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공중감시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항공기에 맞서 비상 출격할 전투 조종사가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를 안내한다. 공군은 지난 1980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방공관제사 예하 7318부대 2통제대는 단체 부문 최우수에 선발돼 대통령상을, 7328부대 5통제대는 우수부대로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항공 우주법 세미나' 개최

공군은 11월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7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03년 처음 열린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연구·토의하는 행사다. 이번에는 '미래 항공우주작전 역량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추진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대면·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개회사, 김선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의 환영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강섭 법제처장의 영상 축사,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이 '우주의 군사적 활용과 공군의 역할'을, 국민대학교 신홍균 교수가



'우주 상황인식 정보의 국제법 및 국내법상 쟁점'을 소개한 뒤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병필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항공우주작전 분야 활용과 법적 쟁점'을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미 공군8전투비행단 타일러(소령) 법무실장도 '미 우주군 현황 및 우주작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8전비 237전투비행대대, 1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8전투비행단(8전비) 237전투비행대대가 10월 25일 1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며 단일 비행대대 기준 공군 최장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 1974년 창설한 237대대는 2007년부터 KT-1 훈련기를 개량한 국산 항공기 KA-1을 운용하며 공중전술통제, 적 무인기 대응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기록은 1975년 10월부터 이날까지 약 46년에 걸쳐 완성했다.//

'국제 전자전 콘퍼런스' 개최

공군은 10월 28일 공군본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국제전자전협회와 공동으로 '2021 국제 전자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전자전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를 주도하는 항공우주전자전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군을 포함한 전자전 관련 민·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고, 대면·비대면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펼쳐졌다. 행사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 글렌 칼슨(Glenn P. Carlson) 국제전자전협회장의 기조연설,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전개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항공우주전투발전단 교리처 이정환 사무관이 '미군 전자전 개념 발전 추세'를, 국방과학연구소 조제일 선임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

공지능(AI)과 지능형 재머'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공군본부 류기필(대령) 전자전과장과 21세기군사연구소 임중수 교수는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 달성을 위한 공군 전자전 전략서 필요성과 우세전략'을 중심으로 각자의 견해를 펼쳤다. 주제발표 후에는 각 주제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발표자·참석자들이 전자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 및 제8기 국민조종사 비행체험

공군은 10월 23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 기간중 대국민 참여 행사로 제5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2021년도에는 56개 팀이 참가해 '드론클래쉬' 종목으로 경연을 펼쳤다. 드론클래쉬는 드론 1대와 조종사·정비사 각 1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와 대결하는 방식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제8기 국민조종사 비행체험 및 임명식도 거행했다. 국민조종사 선발은 공군의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지난 200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행사에

총 2143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 경쟁률인 535대 1을 기록했으며, 강성태(39), 강해구(63), 김보준(32), 손효영(42) 씨 등 4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서울공항에서 국산항공기 FA-50과 T-50에 각각 탑승해 우리나라 곳곳을 비행한 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조종사 임명장과 빨간 마후라를 받았다.//

공군 블랙이글스, 9년 무사고 비행

공군53특수비행전대(53전대)는 12월23일 8전투비행단에서 신옥철(중장) 참모차장 주관으로 블랙이글스 9년 무사고 비행 안전 시상식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8전투비행단 지휘관·참모, 53전대 장병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무사고 비행기록 경과 보고, 유공 장병 시상, 참모차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53전대는 블랙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국가급 행사와 국내외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특수비행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무사고 기록은 지난 11



월 15일 8기의 T-50B 편대가 훈련을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수립됐다. 2012년 11월부터 9년여에 걸쳐 완성한 대기록이다.//

11전비 122비행대대, 7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1전투비행단은 11월 30일 "에하 122전투비행대대가 F-15K 무사고 비행기록 7만 시간을 달성하고, 이 같은 기록을 자축하는 기념행사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대는 지난 2006년 6월 8일부터 약 15년 6개월에 걸쳐 대기록을 달성했다. 2019년 8월 6만 시간 비행기록을 수립한 지 2년여 만이다.



부대는 빈틈없는 안전관리 문화를 바탕으로 각종 연합·합동 훈련과 주요 작전을 완벽히 수행해왔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비행안전 최우수 비행대대에 선정됐으며, 2018년 보라매 사격대회에서는 최우수 조종사인 '탑간'을 배출했다.//